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5. ①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② 20. ⑤
 21. ④ 22. ① 23. ③ 24. ⑤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④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① 35. ④ 36. ⑤ 37. ③ 38. ① 39. ⑤ 40. ②
 41. ④ 42. ② 43. ③ 44. ① 45. ④

[1~2]

1.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의 성격과 요소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대화에서 ‘재은’의 발언은 ‘문화적 배경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는 것도 아니다. ‘문화적 배경’에서 ‘문화’는 지역, 계층, 세대 등 집단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재은’의 발언은 집단의 성격이나 세대 차이 등으로 형성된 문화적 배경의 차이보다 ‘성아’의 평소 행동에 관한 공유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재은’은 상대방인 ‘성아’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인 ‘점심 먹을 때부터~했지.’라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② ‘(엄지를 치켜들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김성아’를 한껏 치켜세우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③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라는 발언을 통해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성아’의 ‘(잠시 침묵)’에 대해 대화 참여자인 ‘재은’의 ‘그리고? 계속해 봐.’라는 협력적 반응이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2.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의 내용과 흐름을 고려하여 이어질 대화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화 참여자인 ‘재은’은 ‘㉠’에 대한 발화 이전에, ‘훌륭한 성품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하여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는 ‘성은’의 ‘훌륭한 성품(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그동안~도와줬던 이야기)’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 회장’의 책임자가 ‘성은’이라는 점을 청중에게 부각시켜 대중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발화는 ‘재은’의 평소 조심스러운 재은의 성품과 거리가 멀어 적절하지 않다. ③ ‘내가 항상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학급 일을 주도해 왔다.’라는 발화는 대화의 내용(‘앞에 나서는 건 꺼리지 않았어?’)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성은’이 ‘임시 반장을 하며 만든 프로그램이

친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야기’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발언은 대화의 문맥을 고려할 때, ‘재은’이 제시한 의미 있는 경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3.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담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담에서 전문가는 진행자의 생각, ‘그러니까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구조라는 말씀이시죠?’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동조하기는 하였으나, 진행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행자의 두 번째 발화 즉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과 전문가의 두 번째 발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그러니까 섬이 많고~말씀이시죠?’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선생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4.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자의 말하기 계획이 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 중, ‘그림 1’과 ‘그림 2’를 한 캔버스에 작가가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발표 앞부분인 ‘이 인물은 고호가~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발표 뒷부분인 ‘이 인물화가 그려진~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라는 발언에서 ‘그림 2’의 분석에 엑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5. 말하기 효과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효과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아마 그럴 것입니다.’라는 발언이나 ‘(본

적이지 않다는 대답을 듣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들이 갖는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공식적 호칭인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부분은 없다. ⑤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6~7]

6. 작문의 목적 추론

정답해설: 제시된 글은 청소년인 글쓰기가 방송국 담당자에게 특정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작문 행위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글쓰이의 요구를 전달하는 표현 행위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필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 작품의 경우와는 달리, 제시된 글은 필자의 정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는 글이므로, 이 글이 필자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작문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시된 글이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라는 특정 독자를 설정하기는 하고는 있으나, 글의 내용이 청소년 집단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글이 ‘개별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표현 행위라는 작문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시된 글의 요구가 수용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받게 될 도움이 진술되어 있기는 하나, 그 도움의 내용이 사회적 갈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필자가 속한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제시된 것은 아니며, 글의 내용상 이 글이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에 관한 친교적 목적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자료 수집·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다)의 자료에는 UCC 제작 활동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해석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 자료에서는 상당수(72%) 학생들이 UCC 제작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가)의 2 자료에서는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 상당수(89%) 학생들이 향후 UCC 제작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나)의 그래프에서는 청소년의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중 ‘제작 기술을 모름’이 가장 큰 요인(68%)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UCC 제작을 안 해 본 청소년 중에서 향후 제작을 희망하는 이가 많다는 내용의 (가) 자료와, UCC 제작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제작 기

술을 모름’이라는 내용의 (나) 자료는, ‘UCC 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제시된 글의 셋째 문단은 청소년 UCC 제작 활동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UCC 제작을 못 해 본 청소년이 많다는 (가)의 내용과 UCC 제작 활동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다)의 내용을 활용한다면, 글의 셋째 단락에 ‘~한 학생들이 향후 UCC를 제작하게 된다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8.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자료는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과 독서 습관 형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므로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만하다는 내용이다. 조건 1은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여 글을 시작하라는 것으로 글의 첫째 내용 요소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학습 만화를 전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여 표현하여 글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건 2는 글의 둘째, 셋째 내용 요소로 ‘학습 만화 읽기’의 문제점 제기와 그 해결 방향 제안이다. 조건 1과 2를 결합하면, 글을 쓸 때, 학습 만화 읽기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다음 문제점을 제기한 후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안해야 한다. ③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라고 하여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 긍정하여 글을 시작했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에서 학습 만화의 문제점을 제기한 다음, ‘같은 주제를 다룬 참고 도서를 폭넓게 읽도록 한다’에서 문제점의 해결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다양한 여휘 습득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을 뿐, 그 해결 방향이 제안되지 않았다. ②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라는 문제 제기와 그 해결 방향 제안만 있을 뿐,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이 제안되어 있지 않다. ⑤ 학습 만화의 긍정적인 측면만 진술되어 있을 뿐, 학습 만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향 제안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나)의 글에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읽은 책을 집에 쌓아 두고만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 글의 서두에 도서관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의 의의를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겠다는 필자의 전락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 글의 필자는 ‘책값이 부담되어 ~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독자들에게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④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책을 나눔, 물건을 나눔, 노인들을 위한 ‘듣는 책 교실’), (나)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가)에 소개된 첫째, 둘째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 독자가 대상이라 보기 어려운 ‘듣는 책 교실’에 관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⑤ (나) 글이 쓰인 매체는 인터넷(게시판)이며, (나) 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 다음의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에서는 이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 내용의 문단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앞에 쓰일 접속 표현으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러나’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 ‘강화되어진’에는 피동 표현 ‘-되-’, ‘-어지-’가 이중으로 쓰였으므로, ‘강화되어진’을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자리에는 시민들로부터 책을 무료로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기여(寄與,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보다는 ‘기부(寄附,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가 적절하다. ③ ㉠의 ‘그 동전’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언급하는 ‘나눔 동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요청(要請)’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또는 그런 청(請)’이며, ‘청(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에게 부탁을 함. 또는 그 부탁.’이다. ㉠의 문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이며 남에게 하는 부탁의 상황이 아니므로, ㉠을 ‘필요(必要,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세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제시한 뒤, 각각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은 각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경음화),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이다. 정답은 ③으로, ‘따뜻하다’는 ‘따뜻 → [따뜩]’의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며, ‘따뜻하다 → [따뜨타다]’의 과정에서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가 일어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음절 종성의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바뀌는 변동이지만, ㉡은 음절 초성의 자음 중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다. ② ㉠에서 ‘앞 → [압]’의 사례에서는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뀌었지만 다른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은 거센소리로 변동되는 현상이지, 거센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 아니다. ④ ㉠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현상이지만, ㉢은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 아니다. ⑤ ㉠이 음운의 축약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은 음운의 첨가에 속하지 않는다. 음운의 첨가는 원래 없던 소리가 추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은 음운의 수에는 변함이 없이 교체만 이루어진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조사 ‘에’, ‘에서’의 국어사전 뜻풀이 및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에서③’은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주격 조사로 쓰일 때의 뜻풀이임에 비해 ㉠에서 제시한 문장은 ‘에서’가 처소의 부사어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①’의 용례에 해당하는. ‘에서③’의 용례로는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도를 들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뜻풀이를 보면 ‘에’는 ㉡에서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음에 비해, ‘에서’는 격 조사로 쓰이는 뜻풀이만 제시되어 있다. ② ‘에②’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의 뜻풀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는 타당한 용례이다. ④ ‘에①①’의 용례,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에서 ‘집에’를 ‘집에서’로 바꾸어 쓸 수 없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형은 방금 집에 왔다.”와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를 비교해 보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에’가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것이고, 후자는 ‘에서’가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현상과 각각의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에서 명사절 ‘겨울이 오기’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명사절이 명사 ‘전(前)’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 역할을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명사절 ‘색깔이 희기’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② 명사절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③ 명사절 ‘자식이 행복하기’가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목적격 조사 '를'은 생략되었다. ⑤ 명사절 '우리가 학교에 가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14.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⑤로, ⑩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⑩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⑩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⑩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⑩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⑩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15. 높임 표현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먹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이다. ②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과 '댁'인데, 전자는 '묻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댁'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이다. ④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⑤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 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다.

[16~18] 과학,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지문해설 : 이 글은 분젠과 키르히호프가 창안한 분광 분석법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분광 분석법이 인접 과학 영역인 천문학에 활용됨으로써 과학사에 남긴 업적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분젠과 키르히호프는 불꽃 반응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후 이러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화합물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광 분석법은 키르히호프에 의해 천문학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키르히호프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나온 금속 원소의 스펙트럼을 태양빛의 스펙트럼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태양과 같은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히는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주제]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는 분광 분석법이 천문학 분야로 확장되어 태양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는 이러한 분광 분석법이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인접 과학 영역에 적용되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내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천체에 가지 않고도 천체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키르히호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광 분석법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광 분석법이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했다고 볼 수 없다. ②, ④ 3문단에는,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빛 스펙트럼에 있는 검은 선들을 발견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빛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낸 것이나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한 것은 키르히호프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버너를 고안하여 물질 고유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꽃 반응을 통해 물질 고유의 불꽃색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분젠의 연구 이전에 발견된 사실로 볼 수 있다.

1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분젠과 키르히호프는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위치는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던 화합물로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속 원소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는, 분광 분석법을 통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분광 분석법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루비듐이 분광 분석법 출현 이전에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될 때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키르히호프는 태양빛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D선이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4문단 처음 부분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철, 헬륨과 같은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트륨의 존재가 철의 존재보다 먼저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분젠은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버너를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버너를 고안한 이후에도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 공간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젠이 금속 화합물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는 버너를 고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은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언급되어 있고 이 글의 3문단에는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과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3문단에서 천체의 스펙트럼에서 나온 검은 선들은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태양빛 스펙트럼의 D선과 나트륨의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분광 분석을 통해 태양 대기에 나트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기>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 중에는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α 에는 나트륨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다. ②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항성 α 의 검은 선들은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항성 α 의 대기 속에 있는 리튬이 빛을 흡수하여 생긴 검은 선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나트륨 스펙트럼의 선과 겹쳐지는 것은 있지만 리튬의 스펙트럼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태양빛 스펙트럼에는 D선 이외에도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서 검은 선들이 나타났다고 언급되어 있다. 같은 원리로 항성 β 의 스펙트럼에도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보기>에 제시된 나트륨 스펙트럼과 겹쳐지는 검은 선을 들 수 있다.

[19-21] 예술, '선암사 승선교에 담긴 미의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선암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돌다리인 승선교를 제재로 하여, 승선교의 건축 원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승선교는 계곡으로 끊긴 산길을 이어줌으로써 경건한 세계와 번잡한 속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무엇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번잡함을 안고 산길을 오르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해준다. 승선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인데,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층의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이 대비되면서 전체적으로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멀리서 승선교를 바라볼 때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이는 산자락의 풍경이나,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가 홍예와 자연스럽게 원으로 이어지는 풍경, 그리고 승선교 주변 수목들의 그림자가 수면에 아른거리는 풍경 등은 승선교와 어우러지면서 계절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자연 속에서 적극적인 합일을 만들어낸다.

[주제] 홍예다리인 승선교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19.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멀리서 바라본 승선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들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들을 해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때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아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서 홍예가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는 양식임을 언급하고 있다. ④ 홍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조 가설들은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반원형이다. 사다리꼴 형태를 띠는 것은 홍예를 만들 때 쓰이는 장대석들이다. 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홍예다리가 구조적 안정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승선교와 옥천교가 유사한 위치에 장식을 덧붙였다는 유사성은 있지만, 이 장식에 담긴 의미가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승선교의 홍예 천장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은 사람들이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옥천교의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 조각되어 있는 도깨비 형상은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승선교는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천교는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간에서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승선교의 석축은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다소 무질서해 보이지만 옥천교의 석축은 홍예와 마찬가지로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으며 다리 난간에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③ 옥천교는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지만, 승선교는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 만들어 설치한 다리이므로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옥천교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인 공간을 잇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승선교는 변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를 잇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라 할 수 있다.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의 '방지한다고'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막아준다고'로 바뀌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활용되었다'는 '이용되었다', '쓰였다' 등으로 무난하게 바뀌 쓸 수 있다. ② '견고하다'가 '굳고 튼튼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돌출'의 의미가 잘 보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의미이다. ⑤ '선사하다'는 '존경·축하·애정의 뜻으로 남에게 선물을 줌.'의 의미이므로 '주다'와 바뀌 쓸 수 있다.

[22~23] 인문, '토인비'의 역사 연구

지문해설 : 이 글은 '토인비'의 역사 연구가 지닌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토인비가 역사 연구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몇 가지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토인비의 역사 연구의 가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는 개념이다.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에 달려 있으며, 이때 도전은 통상적으로 문명이 처한 역경에 해당한다. 한편 토인비는 이러한 도전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되며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성공적인 응전을 통한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창조적 소수의 역량이 발휘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중의 모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모방은 그 방향이 선조와 구시대가 아닌 창조적 소수에게로 작용할 때, 문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제] 토인비의 역사 연구가 지닌 특성

22.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인비는 자신의 가설을 보완하면서 도전의 강도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응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명의 발생과 생존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5문단에서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방의 존재 여부가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을 살펴보면, 토인비는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⑤ 5문단을 살펴보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과거의 인습이 사회를 지배하여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는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급속한 사막화라는 환경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3가지 양상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응전의 양상 중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사막화된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문명의 정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문명이 성장하려면 창조적 소수들이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보기>의 둘째 집단은 문명이 정제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으므로 성공적인 응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둘째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사막화는 기존의 삶의 방식과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적 도전이자 역경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의 첫째 집단은 환경의 도전에 응전하지 않고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집단이다. 그러므로 첫째 집단은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세대와 죽은 선조들을 모방함으로써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④, ⑤ <보기>의 셋째 집단은 수렵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의 도전이 나타나자 기존의 생활 방식과는 달리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창조적으로 응전함으로써 문명의 발생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한편 4, 5문단에서 문명의 발생과 성장을 이룩한 집단은 환경의 도전에 대해 창조적 소수가 역량을 발휘하고 대중들이 이를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셋째 집단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24~27] 사회, '간접 광고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배치 방식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를 밝히며,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한 글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광고 효과가 크다. 간접 광고는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는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되며, 상품 활용이 프로그램의 맥락과 잘 부합하면 맥락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협찬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10년부터 간접 광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접 광고는 은연중에 시청자의 인식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주제] 간접 광고의 특성 및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24.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3문단과 4문단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나,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간접 광고의 개념을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밝히고 있고,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에서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4문단에서는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신설된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간접 광고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2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요즘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맥락 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는 간접 광고가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든다고 하였으므로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에 갖고 있다는 미디어 이론가들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다. ④ 1문단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찬 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③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되어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방식의 간접 광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의 간접 광고는 금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맥락 효과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협찬 제도(㉠)와 간접 광고 제도(㉡)는 모두 간접 광고에 해당하므로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여자가 의상을 입고 있으므로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가 아니라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다. <보기>의 남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한다. <보기>에서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프로그램 내에서는 알아볼 수 없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으므로 커피 전문점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보기>의 휴대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휴대 전화 제조업체는 간접 광고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남자가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한 것은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맥락 효과란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후 <보기>의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한 것은 연인이 함께 하는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의 광고 효과가 컸음을 의미하므로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8-30] 기술,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CD 드라이브에서 어떻게 정보를 판독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크 모터가 CD를 회전시키면,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광 검출기가 CD에서 반사된 광선을 받아들여 랜드와 피트 정보를 구분한다.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시켜 CD의 정보를 읽어 낸다. 때때로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트랙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움직여 편차를 조정하고, 초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켜 초점을 맞춘다.

[주제] CD 드라이브의 구동 원리 및 정보 판독시 오류 해결 방법

2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광학계 구동 모터는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照射)될 수 있도록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상이한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랙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편차를 보정한다. ⑤ 2문단에서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을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면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조사된 모양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때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가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한다고 하였으므로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된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5문단에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렌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상태1>은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의 출력값보다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광선이 해당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태2>는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져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졌으므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태1>은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하며, <상태2>는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태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으나, <상태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트랙의 전후좌우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태1>의 출력값의 총합은 8이고, <상태2>의 출력값의 총합은 16이므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③, ④ <상태1>은 광선이 트랙의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상태2>는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졌으므로,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해야 한다.

[31~33] 현대시 - 이형기, '낙화'

지문해설 : 이 시는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별을 꽃이 떨어지는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이별을 끝이 아닌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낙화'가 꽃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녹음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이듯이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이별 역시 자아의 내적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긴 안목으로 '낙화'를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낙화'가 아픔이나 슬픔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룻하룻' 떨어지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1연에서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연에서 '낙화'의 의미를 드러낸 후, 이를 자신의 이별과 관련지으면서 이별이 비록 슬프지만 영혼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됨을 말하고 있다.

[주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의 화자는 이별과 낙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별이 내적 성숙을 위한 계기임을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은 채 독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또한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시는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이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작품으로, 스스로를 조롱하는 자조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의미하는 '하룻하룻'이라는 의태어는 사용되었지만 의성어는 쓰이지 않았으며 시의 분위기 또한 진지하고 성찰적인 분위기로 볼 수 있다. ④ '분분한 낙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지만, 이는 꽃이 지는 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상의 불변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사랑, 나의 결별'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구를 찾을 수 있으며, '가야 할 때'라는 시구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지금 꽃이 지는 것, 청춘이 죽는 것은 여름의 녹음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㉔은 꽃이 지는 것이 열매라는 결실을 가져오듯 이별 역시 인생에서의 충실한 성장, 내적인 충만을 가져오기 위한 것임을 '가을'이라는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㉔은 이별의 의미, 가치에 대해 깨닫고 있는 화자가 이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표현하여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 화자는 내적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가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다. ② ㉔은 자신의 이별에 대해 '걱정을 인내한'이라 말하면서 이별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 '지나간 사랑'과 관련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③ ㉔은 꽃이 떨어진 후 여름이 되면 맞이할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낙화'가 끝이 아니고 여름과 가을로 이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이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으므로, 삶의 목표 상실이나 변명으로 볼 수 없다. ⑤ 이별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샘터에 물 고이듯'이라고 비유한 표현으로, 과거로의 회귀와 연결 지을 수는 없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봄 한철’은 뒤에 이어지는 행을 볼 때, 걱정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청춘기의 열정과 걱정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꽃답게 죽는 다’는 ‘낙화’와 ‘이별’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그 아름다움은 가을의 열매와 관련되며 이는 자아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자아상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야할 때’는 이별해야 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이며 이는 ‘열매’나 ‘성숙’과 이어지게 되므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③ ‘결별’을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별이 더 나은 발전이나 성숙과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낙화’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의 긍정적 자세를 드러냄과 동시에 <보기>와 연관 지으면 ‘이별’이 이전까지의 세계와 헤어지고 새로운 세계와 만나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임을 인식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눈’을 통해 성찰의 태도를, ‘슬픈’을 통해 시련에 부딪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별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련에 부딪혀 변화를 겪게 하고 새롭게 성숙하게 함을 말하고 있다.

[34~37] 현대소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리게 된 도시 빈민의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다. 난장이 아버지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가야만 했던 난장이 가족의 비극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소외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소설의 앞부분으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고장을 받은 가족들의 반응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와 영수는 현실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알루미늄 표찰을 떼려고 하는 반면 영호와 영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난장이 아버지는 지섭과 교류하면서 사랑은 없고 물신주의적 욕망만 남아 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달나라로 갈 결심을 한다.

[주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된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나’(영수)의 시각에서 서술이 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몰려가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쓸 데 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가 알루미늄 표찰을 떼는 것을 도와주면서도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나’는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아버지가 벽돌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는 것을 과장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것인지 반전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현학’이란 학식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말인데, 서술자가 학식을 과시하는 내용은 없다. ④ 이 글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서술하고 있지만 액자 구조는 아니다. ⑤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은 모두 시간의 선후가 있는 것으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배열한 것은 아니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거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떼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임을 알고 ㉡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생활의 의미마저 포기한 절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머니가 부엌 바닥과 가슴을 치는 것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으로 비통함이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② 집이 강제로 철거되는 상황과 ‘행복동’이라는 지명은 상반되는 것이다. ③ 어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이 모여든 이유가 철거 계고장 때문이므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그것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가 공장 굴뚝 위에 올라 간 것을 본 어머니의 반응이므로 고조된 음성과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지섭과의 대화에서 난장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난장이’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고문’은 재개발을 통해 빈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가진 자들은 아파트 입주나 입주권 거래로 돈을 버는 상황과 관련되므로 ‘불평등’을 들춰내는 소재가 될 수 있다. ② 성실하게 살아 온 ‘난장이’ 가족의 비극은 ‘욕망’으로 가득 찬 ‘죽은 땅’의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달나라’는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달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이다. ④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라는 지섭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7.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은 여러 사람이 질서가 없이 동시에 마구 떠드는 상황이다. 중구난방(衆

口難防)이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로 ㉔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㉒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 ㉓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 ㉕ 횡설수설(橫說竪說): 조리가 없이 말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

[38~40] 고전시가 -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가)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폐위된 단종을 강원도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자신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어린 임금 단종을 유배지로 호송해야 했던 신하 왕방연의 죄책감과 안타까움, 슬픔 등의 감정이 넷물에 이입되어 처연한 시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주제] 유배된 임금에 대한 슬픔

(나)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임제가 35세 때 평안도 도사(都事)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개성 황진이의 묘에 들러 제를 올리며 쓴 시라고 한다. 사대부가 기생의 묘에 잔을 올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 행동이었으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름난 미인이기도 했던 여인에 대해 절절한 애도의 심정을 담아 질문과 영탄의 기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인생 무상

(다)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고려의 유신인 시인이 잡초가 우거진 옛 궁궐의 터를 바라보며 고려의 멸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하고 있으며, '추초', '목적'과 같이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려 왕조 회고와 무상감

38.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운 님'과 이별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에서는 '백골'로 묻힌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에서는 멸망해 버린 '오백 년 왕업'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㉒ 각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시적 화자의 궁핍한 처지와 그로 인한 좌절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㉓ 화자가 호송의 임무를 담당

한 (가), 화자가 죽은 이의 묘를 찾아간 (나), 이전 왕조의 멸망을 유수(有數, 정하여진 운수나 순서가 있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화자의 (다)는 모두,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서러움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㉔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가)의 경우는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세 작품의 주된 정서는 모두 '경외감'과 거리가 멀다. ㉕ 세 작품 모두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나, 자신의 이념과 사회 현실의 대립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서 비롯하는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라고 한 것은 잔을 권하는 상대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박한 세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상실감,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이별한 임과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㉒ 화자 자신이 울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화자 자신을 '울면서 밤길을 가는' 저 물'에 빗대어 ('내 안 같아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㉓ 어두운 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암담한 심경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㉔ 생전의 생기 있던 얼굴과 사후의 백골을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다)에 제시된 공간은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 왕궁터이며,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홍진(속세)'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畵)'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대비적으로 공간을 제시하고 <보기>가 그렇지 않다고 한 ㉔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㉒ [오답피하기] ㉑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울격을 사용하고 있다. ㉓ (다)의 '눈물 겨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심정을, 봄을 맞이하여 자신을 '풍월주인(자연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㉔ (다)의 '석양'은 이전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보기>의 석양은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㉕ (다)의 시조에서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홍진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떡하고'와 같이 부르고 질문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1~43] 고전소설 - 허균, '홍길동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의 허균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전 소설로서 최초의 국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하여 조정과 대립하고, 병조판서에 올랐다가 울도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적서 차별로 인해 인재마저 버리는 당시의 신분 제도의 모순과 불의와 비리가 판치는 당대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조선을 떠난 홍길동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 울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는 소설의 결말 부분이다.

[주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비판과 이상 사회의 건설 추구

4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울도국의 태수는 홍길동의 군사가 몰려오자 왕에게 보고하고 홍길동에 맞서 싸웠다. 홍길동의 격서에 놀라 항복한 사람은 태수가 아니라 울도국의 왕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은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이라고 하며 홍길동을 선동으로 오해하고 있다. ② 인형은 홍길동을 ‘아우야’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장례에 늦은 것에 대해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라고 하며 홍길동을 동생으로 대하고 있다. ③ 홍길동은 남경 땅 제도에서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으며,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⑤ 홍길동은 자신의 부하인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렸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홍길동은 서자였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호부호형하는 것을 허락 받음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자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A] 부분에서는 자신이 구한 터에 부친의 산소를 정하고, 산소의 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지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자신의 부하들(영웅들)과 함께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맞지만 ‘길동이 삼년상을 마치며 모든 영웅들을 모아’라는 부분을 볼 때, 함께 삼년상을 치른 것은 아니며,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졌다는 내용도 없다. ③ 부친을 운구한 사람들은 홍길동의 부하들로 부친의 평소 인간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④ ‘(인형이)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옵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라는 부분을 통해 모부인은 산소를 모시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홍길동이 지술을 배운 것에 대해 모친이 염려하는 내용은 없으며, 가족들도 모두 홍길동의 지술을 인정한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왕이 홍길동을 칭찬한 것은 ‘그 재주’이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자신의 능력을 조선에서 펴지 못하고 국외로 가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제도적으로 승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등용되지 못하는 것은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폐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홍길동은 조선을 개혁하지 않고, 왕에게 자신의 행적에 대해 ‘폐를 끼쳤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국외에서 이상을 실천하는데 이것은 당대 사회에 타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홍길동은 신분제를 개혁하기 위해 왕에게 건의하지 않고, 병조판서가 되어 본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 원인의 해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⑤ 이상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홍길동이 이미 이상적인 사회인 울도국을 정벌하는 데는 개인적 욕망과 명분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45] 수필, 이상, '권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 글쓰기가 일제 강점하의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갔던 일본 동경에서 쓴 작품이다. 그곳에서 글쓰기는 식민지인으로서 설움을 당하였고, 현실과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이 작품은 평안도 성천에서 글쓰기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글쓰기가 일본에서 이를 떠올린 것은 일본에서의 자기 처지가 성천에서의 자기 처지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도시인으로 살았던 글쓰이에게 시골 성천에서의 삶과 식민지인으로서 살고 있던 동경에서의 삶은 모두 무기력하고 권태로웠던 것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자신과 농민의 권태로운 삶, 풍경과 자연의 한없는 권태를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어, 수필이 교양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의 진지한 문학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제] 단조로운 농촌에서 느끼는 극도의 권태

4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주인공 ‘나’는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나’는 자신이 느끼는 ‘사소한 고독’을 ‘세균’에 비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자신의 상념인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일’을 ‘마치 흥명한 형리(刑吏)’라고 비유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우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화를 통해 글쓰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과거의 삶도 드러나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과 대비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4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탐색 대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은 글쓴이가 탐색한 대상이며, 글쓴이는 ㉠~㉢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즉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 하며, 자신의 ‘반추’가 가능할는지 불가능할지를 몰래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불나비’를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저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라며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풀밭’은 글쓴이가 ‘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감을 확인하고 있는 공간으로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좁은 방’은 자신의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도피처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글쓴이는 ‘좁은 방’에 불빛에 달려들어 불을 끈 ‘불나비’를 통해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풀밭’은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는 공간이 아니며, 그 원인을 ‘소’에서 찾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③ 글쓴이는 ‘좁은 방’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불나비’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소’, ‘불나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를 통해서도 ‘식욕의 즐거움조차를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색의 반추’의 가능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불나비’를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자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고 있다.